

# 부산지역 일본인 주거지내의 일식주택과 양풍건축의 유입경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urse of the Inflow of Japanese-style houses and Western-Style Architecture

허 만 형\*  
Hur, Man-Hyung

### Abstract

This study has tried to explain the background of the inflow of western-style architecture, the influx of foreign architectural technicians, the import of building materials, the inflow of Japanese-style houses, and the course of the inflow of western-style architecture in the Busan area since 1910 so as to make the basic data of the forming course of modern architecture and the study of the modern history of architecture in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Japanese-style houses and western-style architecture in Korea were brought in by foreigners, not by Koreans. Also, in Busan all sorts of building materials were imported by Japanese. Japanese-style house and western-style architecture were built by Japanese. 2) Japan has planned the network of roads through the expectation of increasing Japanese in the concession. And constructed houses on the rule of construction since 1877. 3) Western-style architecture in Busan was mostly constructed by Japanese carpenters, and they imitated western-style architecture.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세기 서구의 국가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시민 혁명과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공업과 교통·통신의 발달 등 내적 요인에 의해 근대도시가 발전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외세의 압력에 의해 발달되었다. 즉,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적응하지 못하고 타국의 압력에 의해 문호를 개방한 이후 자주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채 겪게 된 새로운 서구문물도입의 진통과 계속된 국내정치의 불안 속에서 발달되기 시작한 우리나라 근대도시는 기

존의 사회질서와 지역 공간구조에 상관없이 외세의 영향력에 따라 반 타율적인 성장과 변천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항구도시 부산도 타국의 압력에 의하여 일본인 주거지가 생겼으며 청일전쟁 및 노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인하여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부산의 도시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그들의 이익과 관련된 제반 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명목으로 행정을 좌지우지하면서 적지 않은 비행을 일삼았다.

또한 우리나라에 서구의 발전된 근대주거건축사학이론도 개항이후 외국인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근대주거건축도 개항장에 도래한 외국

\* 정희원, 경동정보대학 도시건설디자인계열 교수

인에 의해서 유입된 일식주택 및 양풍건축으로부터 그 기초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의 근대주거건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개항장에 유입된 일식주택 및 양풍건축에 대한 고찰이 선결되어야 된다고 본다. 특히 부산은 개항장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개항이 되어 일식주택과 양풍건축을 받아들이는 교두보 역할을 하였던 곳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대주거건축의 형성사 파악을 위한 새로운 시좌구축과 근대주거건축·주택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부산지역에 초점을 두어 사적고찰을 통하여 1910년 이전, 일식주택 및 양풍건축의 유입배경과 외국인 기술자의 도래, 건축자재의 수입, 그리고 일식 주택의 유입, 양풍건축의 유입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1910년까지로 국한하였으며 이는 한일합방을 한계로 하여 그 이전을 고찰하자는 것이며, 또한 그것을 한계로 건축행정면의 변경뿐 아니라 건축양식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연구는 크게 문헌조사분석과 현지조사분석을 병행해가면서 이루어졌다.

우선 문헌조사분석은 1910년 이전의 정치, 경제, 사회, 행정 등의 제 자료와 본 연구 대상지인 부산과 관련된 역사자료 및 시지, 저술, 사진 및 지도, 각종 잡지·신문 등의 제 자료를 수집하여 시계열별·계통별로 나누어 정리·분석하였다. 한편, 현지조사분석은 현장답사와 지역유지 및 관련공무원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문헌조사에서 나타난 모호한 부문이나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현지조사단계에서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기간은 2000년 12월부터 2001년 6월까지이며, 현지답사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행하였다.

## II. 일식주택과 양풍건축의 유입배경

### 1. 1910년 이전의 부산행정

강화도조약에 의해 개항된 부산은 초기, 동래 관찰사가 외교교섭을 담당하여 지만 1883년 9월 19일 감리서가 설치되어 감리가 부산의 행정을 담당하게 되었다<sup>1)</sup>. 감리서는 1896년 1월 18일 지사서로 개칭되었지만 동년 8월 재차 감리서로 개칭되었다.

동래감리서가 설치되기 전에는 감리분서와 변찰소가 있었다. 이들은 1888년 처음으로 구왜관(현 초량)에 설치되었으며 변찰소는 경무분서라는 이름으로서 초량왜관내의 구재판가에 설치되었다.

그 후, 동래분서가 감리를 겸하게 되어 동래감리서로 개칭하였다<sup>2)</sup>. 그리고 경무분서도 경무서로 개칭하여 구초량객사에 두었다. 1896년 8월 7일에는 본격적인 동래감리서가 설치되었다. 감리관 1명·주사 3명으로 구성되어 부산의 외교·통상사무를 관장하였다. 감리는 중앙의 통리외무아문외무대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sup>3)</sup>.

감리의 권한은 첫째, 각국영사와의 교섭·항구내 모든 업무와 항구의 내국인과 외국인과의 거래를 관장하고 부산항에 들어오는 상품과 관세에 관한 매월 말에 도지부에 보고하는 일이며, 둘째, 항구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명·재산과 내국인에 대한 소송을 항구내의 각국영사와의 사이에서 심리하는 일이다.

감리서의 주사 중, 한 명은 감리가 다른 한 명은 외부가 임명하였다. 또한, 경무관하에는 총순·순검이 있고 이곳에서 사용되는 경비와 인사는 내부가 담당하였다. 감리는 단순히 그들의 지휘·감독만을 관장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소송문제, 항구출입세·외국인의 토지·재산·주택

1) 부산지방해운항만청, 『부산항사』, 현대도서출판사, 1991, p.168.

2) 김용욱, “부산조계사”, 한일문화, 1962, p.84.

3) 이현중, “개항장감리서와 거류지치폐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박사 학위논문, 1977, p.79.

에 관한 사건 등은 감리가 관장하고 기타 내국인의 일반적인 행정·재판문제는 동래관찰사가 관장했다<sup>4)</sup>.

이러한 경과를 거쳐 1905년 11월 16일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고 동년12월 부산일본이사청이 설치되어 동래감리서의 권한을 모두 장악하게 되었다.

## 2. 일본인의 증가

부산에 있어서 일본인들이 이주·정착한 것은 1876년 9월 14일 정대신포고 128호가 발표된 후 부터이다. 정식으로 주거지가 개설될 때의 일본인총수는 약80여명이었다<sup>5)</sup>. 부산의 개항이후 일본은 수호조규 제8관에 의거하여 거주민의 보호, 관리 및 통상사무의 관장을 위하여 관리관을 임명하여 주재시켰다.

영사관이 설치된 직후, 영사가 시달한 「부산일본제국 전관주거지소대도규칙」에 주거지내의 토지는 일본인에 한해서 차용, 양여 또는 상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본인들은 이 일본인주거지를 거점으로 해서 세력을 넓혀가게 되었다. 그 후 인구도 급격히 증가했다. 표 1은 개항초기 일본인수의 변동표이다. 이것을 보면 1876년 말에 82명밖에 되지 않았던 일본인이 1880년에는 2천명까지 증가하였다.

그 후, 1881년, 1882년에는 다소 감소하고 1883년부터 조영수호조약 제4관4항 「주거지경계로부터 10리의 범위 내에는 외국인의 거주 및 토지, 주택의 소유가 인정된다」라는 규정이 일본인에게도 적용되며 따라 일본인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1883년에 1천7백8십명이 1893년에는 4천7백명 이상이 증가했다<sup>6)</sup>.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노일전쟁의 승리를 계기로 해서 1904년에는 1만1천9백9십6명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최

초로 설정된 일본인주거지로서는 협소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주거지확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표 1. 부산일본인의 추이

年 代	戶口數	人 口	年 代	戶口數	人 口
1882(明治15)	306	1,519	1897(明治15)	1,026	6,065
1883(明治16)	432	1,780	1898(明治15)	1,055	6,240
1884(明治17)	4430	1,750	1899(明治15)	1,100	6,326
1885(明治18)	463	1,896	1900(明治15)	1,083	6,067
1886(明治19)	448	1,957	1901(明治15)	1,250	7,029
1887(明治20)	-	2,006	1902(明治15)	1,352	9,691
1888(明治21)	-	2,131	1903(明治15)	1,562	11,711
1889(明治15)	628	3,003	1904(明治15)	1,892	11,996
1890(明治15)	728	4,344	1905(明治15)	2,363	13,364
1891(明治15)	914	5,254	1906(明治15)	2,987	15,989
1892(明治15)	938	5,110	1907(明治15)	3,423	18,481
1893(明治15)	993	4,750	1908(明治15)	4,213	21,292
1894(明治15)	906	4,028	1909(明治15)	4,284	21,697
1895(明治15)	953	4,953	1910(明治15)	4,508	21,928
1896(明治15)	986	5,423			

자료 : 항도부산, 제3호, p.247.

## 3. 주거지의 확장

일본인주거지는 매년 이주하는 일본인의 증가로 인하여 주거지가 협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영사는 주거지확장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제1차 확장은 1880년 북빈일대를 매수하여 확장하였다. 1885년에는 절영도를 일본해군용 석탄저장을 한다는 구실로 4천9백평을 조차하였으며 1892년에는 북병산 일본인묘지 일대를 병자수호조규에 의거한 묘지조항을 들어 일본주거지의 부속지로 흡수하였다<sup>7)</sup>.

일본정부는 이와 같은 교묘한 방법으로 섬과 산을 차입하였고, 그리고 나서 주거지 전면의 해안매축을 실시하였다. 본격적인 해안매축은 북빈일대의 매축공사로써 1898년 1월에 부산매축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북빈일대 20만3천4백㎡의 매축허가를 신청하여 1900년 말에 기공권을 받았다<sup>8)</sup>. 그러나 경제적 사정으로 매축면적을 40,329평으

4) 김용욱, 전계서, p.119.

5) 손정목, 『한국개항장도시변화과정연구』, 일지사, 1984, pp.17-22.

6) 손정목, 전계서, p.106.

7) 부산일본거류지묘지관리규약 제3조에서

8) 김용욱, 전계서, p.141.

로 축소하여 공사를 제1기와 2기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이 공사를 위해서 부산매축주식회사를 창립하고, 1주당 500원으로 총주수 500주, 계25만원으로 1902년 7월에 회사등기를 완료하고 동시에 지점을 설치했다. 그후 10만원을 증자하여 총 자본금 35만원이 되었다. 그리고 1902년 7월 19일에는 제1매축공사를 착공하여 1905년 12월에 낙성하였다<sup>9)</sup>.

이 매축지의 새로운 동명 및 평수는 다음과 같다.

- 1) 좌등정 : 1번지에서 22번지까지 총면적 3,361평이고, 최대지는 300평, 최소지는 66평이었다.
- 2) 매립신정 : 1번지부터 48번지까지 총면적 4,498평이었지만 대부분 조계내의 일본인에게 양여했다.
- 3) 대창정 : 1번지에서 22번지까지 총면적 3,314평이고, 최대지는 1080평, 최소지는 54평이었다.
- 4) 안본정 : 1번지에서 49번지까지 총면적 3,024평이고, 최대지는 120평, 최소지는 43평이었다.
- 5) 중정 : 1번지에서 14번지까지 총면적 1,435평이고, 최대지 120평 최소지 48평이었다.
- 6) 고도정 : 1번지에서 14번지까지, 총면적 2,006평으로 최대지 300평, 최소지 39평이었다.
- 7) 경부정(경부철도기점 본역택지) : 총면적 4,843평이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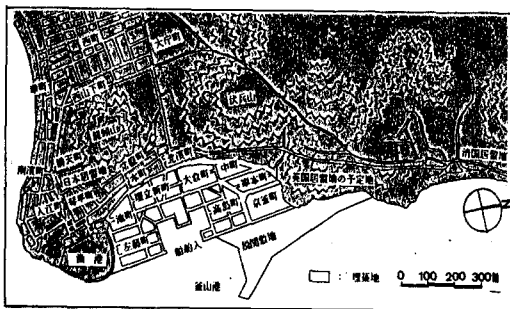


그림 1. 북빈매축지의 동명

자료 : 부산항사, p.230 근거로 필자가 작성(1992)

또한 매축지의 분배는 도로가 약7,550평, 부산역부지 4,840평, 산양철도대합소 303.5평(좌등정 5번지), 부산우편국부지 628평(대창정 5번지), 우선회사 600평(고도정 2번지의 300평, 좌등정 1번지의 300평), 상선회사 600평(고도정 1번지중 300평과 좌등정 4번지중 300평), 세관용지 628평이었다<sup>10)</sup>.

### Ⅲ. 일식주택과 양풍건축의 유입

#### 1. 외국인 기술자의 渡來

개항기의 외국인 기술자는 정부에서 고용한 각급 기관원과 그 가족들이었다. 그들은 일본·중국·독일·미국·영국·러시아·프랑스·이탈리아·네델란드·필리핀 등의 10개국에서 도래하였다(표 2).

표. 2 1910년도 외국인 국적별직업일람표

직종	일본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관공사	26,307 (8,724)	56 (13)	6 (3)	13 (2)	5 (2)	11 (3)	12 (3)
선교사 교원	2,716 (829)	4 (2)	319 (99)	80 (31)	51 (37)	6 (6)	3 (1)
의사	1,749 (463)	7 (2)	57 (22)	14 (5)	-	-	2 (1)
상업	48,802 (14,56)	5,287 (1,490)	10 (4)	13 (5)	24 (7)	18 (6)	3 (2)
공업	17,794 (5,619)	515 (133)	8 (5)	2 (2)	-	-	-
농업	7,812 (2,210)	1,517 (417)	-	-	-	-	-
어업	5,415 (1,423)	2 (1)	-	-	-	-	-
기타	61,321 (17,31)	4,276 (732)	113 (64)	25 (12)	8 (4)	14 (9)	1 (1)
계	171,543 (50,99)	11,818 (2,790)	513 (197)	147 (57)	88 (50)	49 (24)	21 (8)

자료 : 조선총독부의 통계 연보

특히 부산에는 일본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도래한 외국인 기술자들은 무기에서부터 철도·전신·석탄·목공·농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중 건축관련기술자는 건축설계와 감독을 하는 건축가와 정부에서 고용한 기사·목공 또는 목수, 벽돌공 등 전문분야의 직공

9) 「한국이대항실세」, 일한정문사, 1905, p.121.

10) 한국이대항실세, 전게서, p.125.

들이었다. 당시 외국인 건축가를 크게 분류하면 3가지로 나누어진다. 즉, 정부가 고용한 건축가, 주거지에 도래한 건축가, 그리고 선교사이다. 정부에 고용되어 활동한 건축가 중 인천해관에 근무한 토목기사 Sabatin<sup>11)</sup>은 인천해관청사(1883), 정동 러시아 공사관(1885)을 설계하였으며 대조선인천제물포 각국조계지도 작성도 행하였다. 게다가 독립문의 설계와 감독(1897)도 그가 하였다.

그리고 인천세관에 근무한 네델란드인 Staden<sup>12)</sup>은 토목기사로서 목포, 군산, 마산포의 주거지를 측량하였다.

주거지에 있어서 활동한 건축가는 주거지내에 본국의 공관과 관저 혹은 근대도시시설의 병원, 역사, 학교 등의 설계와 감독을 행하였다. 그 중 영국인의 Boyce(인천 영국영사관, 1897)와 상해의 독일인 구락부를 설계한 독일인 Rothkegel은 인천에서 활약하였다.

경성(서울)에서는 캐나다인 Gordon(세브란스병원, 1903)과 독일인 Laland<sup>13)</sup>(조선 주둔군사령부 관저, 1907-1909)가 부산의 일본 주거지에서는 1904년 부산 상품진열관을 설계한 일본인 건축가 도변양<sup>14)</sup>이 활약하였다.

선교사의 건축활동은 1885년에 입국한 고의선(Coste) 신부가 용산신학교(1891), 약연성당(1893), 제물포성당(1896)을 건축하였으며, 또 박도행(Poisnel)신부는 전주의 전동성당(1914), 황해도 의 은율교회(1918)등을 건축하였다. 그 밖에 프랑스인의 Robert 신부는 대구의 계산성당을 건축하였다.

부산의 일본 주거지에서는 일본에서 도래한 건축가와 토목 및 건축의 청부업자가 많이 활동하였으며 그리고 그들은 주거지내의 시가지 정비와

상가를 형성한 일식 목조주택의 건설에 큰 역할을 하였다.

## 2. 건축자재의 수입

개항으로 인하여 외국인들의 왕래와 거주, 통상 등이 허용되자 외국인들은 간단한 실내장식품들을 반입해 왔으며 또, 각 개항장의 외국인 주거지는 차츰 정비되어 외국인들을 위한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각종 건축용 자재도 수입되었다. 당시 주택은 거의 목구조였으며 건축용 자재의 유입도 대부분이 목재였다. 그밖에 기와, 유리, 시멘트, 석회 등의 건축용 자재와 각종 실내용품도 수입되었다(그림 2).

목재는 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되었으며 당시 부산 일본전관주거지내의 건축자재 수입은 일본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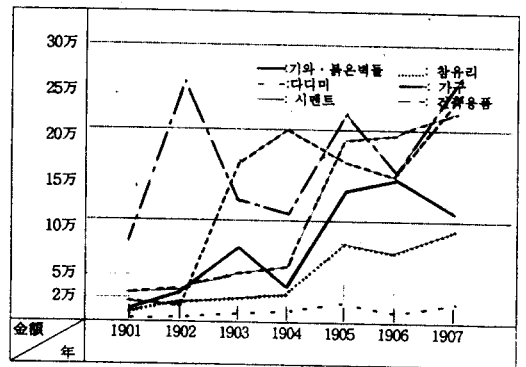


그림 2. 건축자재의 수입실적

자료: 「건축잡지」, 제16집, 191호, p.334, 근거로 하여 필자가 작성(1992)

그러나 1883년 인천 일본영사관의 신축은 일본 삼정물산이 북해도산 목재를 수입하였다<sup>15)</sup>. 그 후 경인·경부선 철도공사가 시작되어 그것에 사용되는 철도용 침목도 일본에서 다량으로 수입되었다. 철도 제2기 공사부터는 중국·미국·영국

11) 김정동, “한국근대건축에 있어서 서양건축의 전이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박사학위 논문, 1991, pp.196~202.  
 12) 방사랑, 「마산항지」, 1926, pp.44~46.  
 13) 김정동, 전계서, pp.240~242.  
 14) 부산시사편찬위원회, 『항도부산』, 태화인쇄소, 1963, p.280.

15) 인천시, 『인천부사』, 1933, pp.218~219.

에서도 수입이 이루어졌다<sup>16)</sup>. 그러나 이 미국산 목재도 일본을 통해서 수입된 것이다<sup>17)</sup>. 경부선 철도 공사가 완성된 (1905)후 수입된 목재는 주로 건축용 판재와 가구, 건구재가 대부분이었지만 목재품과 당지의 수입도 증가하였다(표 3).

1904년 부산항의 목재 수입을 살펴보면 일본의 총수입액 4,975,880원 중 887,227원이고 또, 미국의 총수입액 1,080,522원 중 679,912원이 목재이다. 결국 무역의 총수입액 6,416,658원 중 1,836,364원(28.6%)이 목재가 차지했던 것이다.

건축용 목재의 수입액을 살펴보면 일본에서 301,885원, 미국에서 44,975원으로서 나타나, 결국 목재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되었다는 것이 증명된다<sup>18)</sup>.

표. 3 목재류의 수입실적

종류 년	철도철목 · 판재	목재품	죽재	죽재품	당지
1901	98,517	29,197	4,307	-	-
1902	158,698	39,373	3,409	-	-
1903	333,348	36,731	5,578	-	-
1904	649,141	46,415	4,895	-	-
1905	732,670	77,745	15,041	-	-
1906	1,155,392	81,142	16,553	-	-
1907	1,828,352	88,790	22,431	-	-
1908	1,897,176	141,952	22,079	20,179	63,664
1909	1,287,263	150,012	33,505	22,674	54,208
1910	1,681,036	165,148	37,454	28,203	41,850

자료 : 조선수출입품 15년 대조표

1880년 7월 일본영사관이 시달한 주거건축가규칙에 모든 가옥은 기와나 함석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벧집이나 판자 등의 가연물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일식 목조주택의 신축이나 증축이 행하여졌다. 그 당시에 건축된 일식 목조주택의 구조는 4치 정도의 가는 기둥과 평벽, 그리고 기둥과 기둥사이를 수평으로 판자를 걸쳐 된 비늘

판 붙이기 구조였다.

### 3. 일식 주택의 유입

병자수호조규 제4관·동 조규부록 제3관에 의하여 부산일본조계가 조인되어 약 11만평이라는 토지가 일본인 소유나 다름없이 된 1877년 1월 30일 이래, 그 변두리의 막대한 토지마저 손에 넣은 일본인들은 그 막대한 토지(1905년 현재 5,491,714평) 위에 속속 그들의 주택을 짓기 시작하였다. 당시 주택을 소유한 일본인은 1910년 6월의 통감부판 「최근한국사정요람 제223」에서 살펴보면 1909년 6월말 조사결과 부산의 일본인 건물 소유자 수는 1,258인으로 그 총평수가 103,789평으로 되어 있다.

물론 그 중에는 상가건물 등 2중 소유와 공공 건물도 있을 것으로 믿어지나 당시 건물 소유자는 전체 호구수의 약29%가 되는 것으로 전체 일본인의 약 3분의 2 이상이 자기소유의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부산거주 일본인들의 빈부 차가 있다는 결과도 되고 이주민증가율에 비하여 주택건립이 뒤따르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건립된 일본인 주택은 용두산을 중심으로 하여 넘치게 하였고 1900년경에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인 소도시를 형성하기에 이르렀으며 동(町)마저 일본식으로 표기하였다(항도부산제2호 참조).

이 양상을 일본인의 기술대로 표현한다면 「...시가의 중앙에 일구가 있어 용두산이라고 칭하니 즉 본항의 공원지이라 시가는 용두산을 중심으로 기 주위에 확보하고 시가구중횡구획정연대소 이십여정 있되 취중 본정, 변천정(장수통), 남빈정, 행정 등을 은진열뇨의 추구라 하더라 주택이 구조는 하나같이 일본풍으로서 와맹린 차 전포즐비의 상 전연 내지의 도시와 다를 바 없음이라...」<sup>19)</sup>

16) 건축잡지 제16집 191호, 1902, p.334.

17) 건축잡지 제17집 196호, 1903, p.148.

18) 상택인조, 「부산항세일반」, 일한창문사, 1905, p.96.

19) 부산요람 1912년 발간 제3면에서 번역



그림 3. 부산 일본인 시가지 전경  
자료 : 부산직할시, 1976, 「개항 백년」

이렇게 일본 주거지가 그 당시로 보아서는 비교적 정연하고 기와집으로만 건축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개항초기인 1880년 7월 19일에 일본영사의 이름으로 거주민단을 통하여 포달된 주택건축가규칙에 의한 것이었다.

그 가규칙이라 함은 전문 7조로 된 일종의 건축법규인데 그 골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허가를 얻어 주택을 신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계획된 도로에 따라 방향을 바르게 할 것.
- 주택이 도로에 접하는 자는 물론 도로의 계획에 준해서 할지라도 만일 도로에 접하지 않던가 또는 주택내 공지가 있는 자는 담장을 하고 도로에 향하여 문을 낼 것.
- 지붕은 기와집으로 한함. 송판 등의 연소하는 재료로서 지붕을 잇지 못함.
- 변소의 구조는 가장 청결함을 요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견고하고 치밀한 것을 쓰며 분뇨가 누설치 않게 할 것.
- 택지내 하수통 등은 견고한 것을 쓰고 하수가 누설치 않도록 주의할 것.
- 구 주택일 경우는 이 규칙 발행 후 6개월 이내에 모두 제2조, 제4조, 제5조의 규칙에 따르고 12개월 이내에 제3조 규칙에 따를 것.
- 규칙에 위배하는 자는 택지 반납이 요구될 것임<sup>20)</sup>.

이것으로 미루어 200여 호의 주택밖에 없었던 (1889년) 개항초기부터 주거민의 증가를 예상하여 도로망을 계획하고 주택의 구조를 규정하여 일식 주택을 건축하였다.

이렇게 하여 일본인 주거지는 일본을 방불케 하는 시가가 형성되는 가운데 관리관청을 필두로 일본인들의 경찰서, 은행, 병원, 상업회의소, 전화국 등 공공건물이 차례로 건축되어졌던 것이다.

#### 4. 양풍건축의 유입경로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양풍건축의 유입경로는 첫째, 일본인에 의하여 건축된 건물, 둘째, 선교사를 통하여 들어온 구미인 종교계통의 시설, 셋째 외국(일본을 제외 한)의 공사관 계통의 건축, 넷째 상기 계통에서 습득한 한국인 자신의 기술로 된 건축물 등 네 가지 계통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이 중 부산에 있어서는 구미인의 선교에 의한 시설은 특히 그 규모와 본국과의 거리관계 등으로 볼 때 정규적인 건축 즉, 건축가의 설계에 의해 건축된 것들은 거의 없으며 영사관 계통의 건물은 지방적 사정으로 논의할 만한 건축은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다.

한국인 자신의 손으로 된 건물은 한국인의 건축교육면으로 볼 때 1910년까지는 양풍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가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므로 그 양과 기술면에 있어서도 미미한 것이다. 따라서 양풍건축은 대부분 일본인의 손으로 이루어 졌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그러면 일본인들이 부산 땅에 그들의 기술로 소위 양풍건축을 유입한 경로는 또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세밀히 살펴보면 양풍건축은 주로 관아 건물과 공공건축물인 것인바 그것의 배경이 되는 행정관계를 먼저 고찰해야 되겠다. 병자수호조규 체결 이전인 1873년에 일본정부는 외무주재관을 파견하여 일본거주민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했다. 1874년에는 관리관청을 두고 관리관이

20) 부산부사원고 제6호 제138면에서 번역

라는 직함으로 행정사무를 관장하게 하고 그 관리하에 자치기관인 보장두취역이라는 것을 두어 거주민에 관한 공공적 사무를 처리하게 하였다<sup>21)</sup>.

병자수호조규 후에도 해당 조규 제8관에 의하여 계속 동관리청을 주재하게 하여 거주민의 행정을 장악하게 하다가 1880년에 관리청을 영사관과 대체하고 산하 자치기간은 주거지편제규칙의 발표로 총대역소로 하고 그 기관의 장을 총대라고 하였다. 이 기관에 주거지 공공사무의 일체를 담당하게 하고 중요사무는 호적, 토목, 위생, 교육 등이다. 그 총대역소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명칭의 변경과 변천이 있었으나 1905년 한일협약이 체결되어 통감부가 서울에 개청 됨에 따라 부산에는 영사관에 대하여 이사청을 두게 됨과 동시에 자치기관을 개편하여 부산거류민단으로 하고 그 구역도 크게 확장하였다.

민단역소의 사무조직은 총무, 서무, 토목, 징세, 회계 및 수도의 6계를 두었는데 그중 토목계에서 토목공사, 건축설계, 공유건물의 영선 등을 분장하였다<sup>22)</sup>. 건축의 시공과 감리는 민단역소를 통하여었는데 그것은 또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영사관, 경찰서, 전화국 등의 관아건물은 영사관 혹은 이사청의 기획에 의한 것이고, 기타 학교, 역소, 위생시설 등의 공공건물은 민단자체에서의 기획인 것이다. 이 시설들의 설계는 어떠한 경로로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1900년경 이전에는 영사관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도목수에 의한 모방된 양풍건축이다. 상품진열관이 준공되는 1904년경 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양풍건축들이 보이나 그것도 극소수이고 대부분이 모방한 양풍목조건물이었다.

거류민단의 사업도 그 시기 이후부터 활발해지는데 그것은 통감부설치이후 민단의 법적 근거와 조직 그리고 권한확대에 의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대사업은 통감부의 직접소관으로 경영하였으며 당시 한국 도지부소관공사라는 것은 통감부를 통한 일본인의 발기이며 기술이었던 것이다.

다음은 일본 거주민의 사업이 가장 활발해지는 1905년 이후의 사업표(시행과 예정)를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부산 거류민단의 사업

년 도	공사명	공사금액(원)
1905	의병원개축	7,233
	내청산·복병산배수공사	8,196
	부산심상소학교건축	33,938
1906	조량심상소학교증축	2,801
	부산심상거동소학교건축	39,072
1907	상업학교건축	32,559
	전관거류지내도로공사	64,504
	부산심상소학교 절영도의 분교	8,865
1908	검육서이전공사	4,940
	조량 및 절영도소학교증축	11,000
	공원설비	2,217
1909	건강진단소신축	3,213
	병원신축	36,611
	거동소학교신축	36,500
1910	영선산학평 및 배축공사	1,070,000
	사하면선시가지정비	20,000
	수도부지	1,000,000
	절영도선시가지정비	50,000

자료: 허만형, 1993, “한국부산의 도시형성과정과 도시 시설에 관한 연구”

이러한 관아건물과 공공건물 외에 민간의 시설 특히 상업건물이 별도로 적지 않게 건립되었는데 개인상점은 일식 주택임에 틀림없고 양풍건축을 찾는다면 상업회의소를 비롯하여 회사 조직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상업회의소부설 상품진열관은 부산의 건축사상 팔목할 처지에 있는 것이지만(그림 4 참조) 기타 은행과 회사는 몇 개의 열외를 빼고는 대부분이 1905년 이후에 설립되었는데 이것은 노일전쟁후 일반기업이 갑자기 많이 건립됨에 따라 일어난 현상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민간 기업체에 있어서의 건축은 설립보다 뒤늦게 이루어졌으며 해당 기업체의 건축물에

21) 부산시사편찬위원회, 전계서, pp.256~257.

22) 부산잡인회, 「일선통교사부부산사근대기」, 1916, p.114.



관하여는 문헌부족으로 도저히 조사 규명할 수 없고, 몇 개의 은행 건물을 제외하고는 1910년대 이전에는 거의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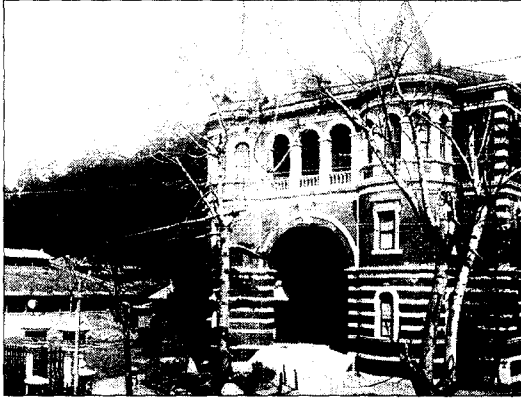


그림 4. 상품 진열관

자료 : 최석로, 1988, 「근대한국」

이상 부산에 일본인에 의하여 유입된 양풍건축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그리고 당시의 일본자체의 건축계와 비교를 해 보면, 일본 명치시대의 건축을 4기로 분류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 제1기 명치초기(1868~1882.3) : 양풍건축으로 옮기는 과도기, 도목수에 의한 모방의 양풍건축(일본식 혼합).
- 제2기 (1884.5~1894.5) : 처음으로 일본인 건축가에 의하여 벽돌과 석재로 건축을 한 시대.
- 제3기 (1895.6~1904.5) : 양풍건축의 진수를 알고 피상적인 모방에서 참 모방으로 건축한 시대.
- 제4기 (1905.6~1911) : 재료 및 구조에 있어서 대 혁신이 있었던 시대<sup>23)</sup>.

이상과 같은 바 부산에 있어서 일본인경영건축이 일본자체의 시대구분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처음으로 부산에 지은 관리관청(1879년 건축)을 비롯하여 각종의 건축들은 연대적으로 상기 제1기에 속할 뿐 아니라 일본자체의

개화가 얇고 서양식 건축기술을 체득하지 못한 시기인 만큼 지방적이며 부산 일본 영사관이 비로소 상기의 제2기에 속한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유일한 증거인 그림 5에서 고찰해 보면 규모가 작고 목조인 관계도 있으나 역시 과도기적 면모가 보인다고 말할 수 있겠다. 본 건물은 그런대로 통일성이 있는 양풍인데 그것은 이 시기의 특수한 예외이다. 기타 대부분의 건물들은 도목수의 솜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림 5. 부산 일본영사관

자료 : 최석로, 1988, 「근대한국」

다음으로 부산에 있어서 가장 본격적인 서양식 건물의 효시이라고 볼 수 있는 상품진열관에서 비로소 일본 정규 건축가의 손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 만큼 일본 당시의 건축수준에 합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것은 통감부설치 이전의 유일한 예이다. 같은 시대의 다른 건물은 역시 모방적 양풍건물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색이 짙은 모방적 양풍건축이 범람하는 가운데 1910년경에 본격적인 건물들이 건립되는데 그것도 소수이며, 구조면에 있어서는 전기 제4기 보다 새로운 것은 없고 당시 일본자체의 수준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일본인에 의하지 않고 건립된 양풍건축은 극소수의 사립학교들뿐인데 당시의 면모는 찾

23) 1928년에 발간된 일본 평범사 세계미술전집에서 번역

을 길이 없고 대부분 소규모의 목조인 것으로 사료된다.

#### IV. 결 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일식주택과 양풍건축은 한국인이 자발적으로 들여온 것이 아니라 외국인에 의하여 유입·형성되었다.

항구도시 부산도 일본의 요구에 의하여 일본인 주거지가 설치되고 이 주거지를 중심으로 일본인의 손에 의하여 각종 건축용 자재의 수입, 건축 기술자들의 도래, 그리고 일식주택과 양풍건축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당시 건축용 자재의 수입은 목재가 대부분이었으며 주로 일본에서 수입되었다. 그 밖에 벽돌, 유리, 시멘트, 석회 등 건축용 자재와 실내의 장식용재 등도 수입되었다.

건축 기술자의 도래는 정부에서 고용된 각급 기관원들이었으며, 특히 부산에 있어서는 일본인 기술자의 도래가 압도적이었다. 부산일본인주거지내 관공시설의 시공과 감독은 주로 '민단역소'에서 행하였으며 기획은 관청건물은 '이사청'이 그 밖의 건물은 '민단역소'가 했다.

1877년이래 일본은 일본인의 증가를 예상하고 도로망을 계획하였으며 주택도 구조의 규칙을 규정하여 건축하였다. 이렇게 하여 부산의 일본인 주거지는 일본을 방불케 하는 시가지가 조성되면서 관리관청을 시작으로 경찰서, 은행, 병원, 상업회의소, 전화국 등 공공건물들이 차례로 건축되었다.

이 건축들의 주요 구조는 목구조이며 지붕은 기와를 사용하였다. 1910년부터는 벽돌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도래한 건축가와 건축청부업자들도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부산에 있어서 양풍건축의 유입경로는 대부분 일본인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도목수에 의한 모방된 양풍건축이 건축되었다. 그러나 당시에 건축된 상품진열관만은 모방된 양풍건축이 아닌 정규 건축가의 손에 의하여 설계되고 건

축된 서양식 건축이다.

그리고 일본인에 의하지 않고 건립된 양풍건축은 극소수의 사립학교들뿐인데 당시의 면모는 찾을 길이 없고 대부분 소규모의 목조인 것으로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1. 부산부, 부산개항오십기념호, 대정11,경성
2. 윤일주, "한국양식건축 80년사·해방전편, 야정문화사, 1965
3. 최성연, 개항과 양관력정, 경기문화사, 1959
4. 김태영, 한국개화기의 외인관, 건축사, 1989
5. 김정신, "한국가톨릭성당건축의 수용과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6. 김태중, "구한말도지부 건축소의 조직과 사업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2
7. 상택인조, "부산항세일반", 일한창문사, 1905
8. 김동욱, "한국근대건축에 있어서 서양건축의 전이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9. 한재수, "한국건축사학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10. 허만형, "한국부산의 도시형성과정과 도시시설에 관한 연구", 교토대학, 박사학위논문, 1993